

전남도-함경북도 '땅끝협력' 성사되나

대북 비료지원 재개 민간차원 남북교류 숨통 기대

정부 "민간단체 식량지원은 현재 고려 안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막혀 있던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5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전남도가 함경북도와 모색하는 '땅끝 협력'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이번에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그간 경색됐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에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대북교역,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북한 주민접촉 등을 중단시킨 대북 제재다.

통일부가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남지사는 올해 초 "한반도 땅끝인 전라남도도 함경북도 사이의 교류와 협력 약칭 '땅끝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며 "남북통일과 민족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동의를 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남도는 중국 연변대 관계자를 통해 함경북도와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도는 미역과 쌀을 함경북도 산

모들과 불우아동들에게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지사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남북이 서로 땅끝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미역, 쌀보내기를 시작해 함경북도와 교류를 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남북 지자체 간 교류를 막는 상황에서 한계는 있지만, 당국도 (지자체 교류)를 허용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전남도는 대북 비료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땅끝 협력이 어느정도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산모들과 불우아동들을 돕고자 한다"며 "남북 간 분위기가 호전된 만큼 통일부와 협의해 함경북도와 땅끝 협력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직결된 문제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쉽게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5·24 조치 해제와 이에 따른 민간교류 협력

이 가속화할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은 당분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 허용 여부와 관련, "쌀이나 밀가루 등 식량 지원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민간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임진강 건너는 대북지원 차량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대북지원 차량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이날 에이스경암은 복합비료, 온실 건설자재, 영농기자재 등 농업협력물자 컨테이너 22대 분량을 함경북도 사리원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은 지난 2010년 5·24 제재 조치 이후 이번이 5년 만에 처음이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대북지원 차량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이날 에이스경암은 복합비료, 온실 건설자재, 영농기자재 등 농업협력물자 컨테이너 22대 분량을 함경북도 사리원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은 지난 2010년 5·24 제재 조치 이후 이번이 5년 만에 처음이다.

中 "위안부 증거 산처럼 많은데 인신매매라니..."

아베 美 강연 발언 강력 비판

중국정부는 28일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의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신매매'라고 지칭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군위안부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엄청난 반인도적 죄행"이라며 "이에 대한 증거는 산처럼 쌓여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책임지는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

히 처리해 아시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하버드대 강연에서 일본군의 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 '인신매매' 피해자란 표현을 쓰며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과나 사죄는 하지 않았다.

중국인 자신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새로운 미일방위지침에도 반발했다.

미국과 일본은 아베 총리의 방문에 맞춰 27일 미일 행동방위의 세계화와 대중국 역지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도서(섬) 방위'를 명기하는 등 중국 견제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일동맹은 냉정시기에 형성된 것이지만 냉전은 이미 오랜 전 끝났다"며 "이 동맹(미일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갈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미일동맹이 당연히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지역의 평화·안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그 누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며 "중국은 국가의 영토주권을 강력히 수호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미국이 발표 전 세 방위지침 내용을 중국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발표 전에 통보를 했고, 중국은 미국에 다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엄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아베 총리의 이번 행보에 대해 전문가 등을 동원해 비판을 가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치평론가 팡옌(方媛)이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의 헤게모니(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비수도권 14개 시·도 공동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

광주광역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시는 28일 "오는 6월말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선지역경제 활성화, 후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4월 6일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에 서명운동 목표 인원은 광주 시민의 38.5%인 57만명이며, 시와 5개 자치구,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각급

학교 학생 등과 공동 연대해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시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유스퀘어(광천터미널) 등에서도 서명참여 캠페인을 펼친다.

염방열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용을 유발하고,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대중센터 사업본부장 외부공모 논란

광주시, 인사 규정 무시한 채 공모 진행 직원들 반발

민선 6기 들어 자치단체장의 측근인 인사규정까지 무시하며 산하기관인 김대중컨설팅센터에 '측근 심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김대중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시는 최근 김대중컨설팅센터측(이하 센터)에 지난해 7월 이후 공석인 사업본부장(1급)을 외부 공모로 선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30일 외부 공모를 공고할 예정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임원인 사장과 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모를 통해 임명(임기 3년)하도록 돼 있지만, 직원인 사업본부장은 센터사장이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센터 직제 규정에도 직원 직제는 1~7급으로 구분돼 있으며,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은 1~3급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센터정관과 규정을 종합하면 직원인 사업본부장은 내부 직원 중 근무 과정에

서 익힌 다양한 능력 평가와 내부 평가 등을 거쳐 센터사장이 임용 배치토록 돼 있는 것이다.

이는 센터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업본부장의 업무 특성상 외부 영입인사에게 자리를 맡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 등 따라 센터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내부직원 승진을 통해 사업본부장을 임명해 오고 있다.

센터 사장 직무대리인 김효성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은 "사업본부장을 공모하려 하는 것은 전문가 영입자원이며 (경력적 채용인 만큼) 규정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비록 그동안은 내부승진 인사로 채워졌지만 센터에서 먼저 외부공모를 요청해와 결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의 한 관계자는 "센터 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시정에 외부공모를 요청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이미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내정설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 취임

문인(57)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8일 취임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문인 전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신임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문 부시장은 광주시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통'으로 행정직이 독점했던 자치행정국장에 토목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임명되는 등 탁월한 행정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 부시장은 광주 일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기술고시 출신으로 복구 부구청장과 시의회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5 밝은광주인과 빛창 공모전

빛*드는 창에 사랑을 그린다

지역민의 눈 건강을 지켜온 밝은광주인과 빛창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빛창 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짧은 글을 선정해 밝은광주인과 눈모양빌딩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시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 | |
|----------------------------|-----------------------|
| 공모일정 | 시상내역 |
| 접수기간 : 2015. 4. 20 ~ 5. 13 | 대 상 (1면) 문화상품권 30만원 |
| 발 표 일 : 2015. 5. 15(금) | 최우수상 (1면) 문화상품권 20만원 |
| 접수방법 | 우 수 상 (2면) 문화상품권 10만원 |
| 밝은광주인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 가 작 (10면) 문화상품권 3만원 |
| www.best-lasik.co.kr | |
| 공모주제 | |
| 사랑, 여름, 바다, 휴가 등 | |
| 문의 (062)351-9938 | |

밝은광주인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